



# 천신만고 KIA, 스윙패는 없다

KIA 타이거즈가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의 시즌 6차전에서 최형우의 선제 스리런 등을 앞세워 10-7 승리를 거두면서 연패에서 벗어났다.

(KIA 타이거즈 제공)



## KIA, LG에 10-7 재역전승... 2게임차 선두 최형우, 홈런 등 4타점... 복귀 나선 범 '볼넷'

KIA 타이거즈가 스윙패 위기에 처 벗어나 2경기

차 1위를 지켰다.

KIA가 28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시즌 6차전에서 4타점을 만든 '최고참' 최형우를 앞세워 10-7 승리를 거뒀다. 이날 승리로 3연승을 달린 NC와 두 경기 차를 유지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앞치락뒤지락하는 승부 끝에 아쉬운 연패를 기록했던 KIA가 집중력을 발휘하며 재역전승을 거뒀다.

최형우가 1회부터 강력한 한 방을 선보였다. 최근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박찬호를 대신해 김선빈이 투타자로 나와 우전 안타를 장식했다. 이창

진의 볼넷으로 무사 1-2루, 김도영이 헛스윙 삼진으로 몰라냈지만 최형우가 LG 선발 손주영을 상대로 좌측 풀 때리는 3점포를 장식했다.

시작과 함께 홈런이 나왔지만 초반 흐름이 매끄럽지는 않았다.

1회말 KIA 선발 윌 크로우의 실점이 기록됐다. 크로우가 선두타자 박해민의 내야 안타에 이어 문성주에게 연속 안타를 맞았다. 이어 김현수의 2루 땅볼 때 3루에 있던 박해민이 홈에 들어갔다.

3-1로 앞선 3회말 다시 실점이 올라갔다.

선두타자 구본혁을 좌전안타로 내보낸 크로우가 신민재의 유격수 땅볼로 선행주자를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박해민의 우전 안타로 1사 3루, 문성주의 우익수 희생플라이가 나오면서 3-2가 됐다.

KIA가 4회초 최원준-한준수-박찬호의 3연속 안타를 묶어 2점을 보냈지만 크로우가 5회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5-2호 앞선 5회말 크로우가 선두타자 신민재를 좌전안타로 내보낸 뒤 도루를 허용했다. 박해민의 2루 땅볼이 나오면서 1사 3루, 문성주의 좌전안타로 5-3이 됐다. 이어 크로우가 초구에 김현수에게 우전안타를 내줬고, 오스틴과는 7구 승부 끝에 볼넷을 기록했다. 1사 만루에서 김범석의 타구가 우측으로 흘렀고 씩씩이 3루타가 됐다.

순식간에 5-6으로 승부가 뒤집혔고, 크로우가 마운드에서 몰라냈다. 좌완 이준영이 구원 투수로 나선 오지환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5-7이 됐다.

앞선 두 경기와 마찬가지로 LG의 흐름으로 경기가 흘러가는 것 같았지만 7회초 김선빈이 반격에 나섰다.

김선빈의 중전안타 뒤 이날 1군에 등극된 나성범이 이창진을 대신해 그라운드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범경기에서 입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재활을 하였던 나성범은 시즌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뒤 대주자 김호령과 교체됐다.

그리고 앞선 세 타석에서 침묵했던 김도영이 3루 방향으로 기습 번트를 시도했다. 포수 박동원이 공을 잡는 순간 이미 김도영은 1루에 근접한 상황. 박동원이 3루 승부를 선택했지만 송구 실책이 나왔다. 공이 빠진 사이 김선빈이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면서 6-7이 됐다. 김도영은 번트 안타를 기록하면서 17경기 연속 안타에 성공했다.

투수가 박명근에서 정우영으로 교체됐지만 무사 2-3루에서 KIA의 공세는 계속됐다.

최형우의 2루 땅볼 때 3루 주자 김호령이 홈에 들어오면서 승부가 7-7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이우성이 좌전 적시타를 날리면서 김도영을 홈으로 불러들였다. 8-7로 리드를 잡은 KIA는 8회 김선빈의 2루타와 김호령의 좌전 안타로 점수를 더했다.

9회초에는 상대의 실수 연발로 승기를 굳혔다. 소크라테스에 시선이 쏠렸다. 선두타자로 나선

소크라테스가 우전 안타로 출루했다. 최원준의 1루 땅볼 때 소크라테스가 협살에 걸렸지만 상대 수비진을 피해 움직였다. 집중력 있는 주루에 1루수 문보경이 공을 밀어트렸고, 소크라테스가 극적으로 2루에 도달했다.

한준수의 볼넷으로 1사 1루, 박찬호의 땅볼 타구가 유격수 앞으로 향했다. 공을 넘겨받은 2루수 신민재가 베이스를 찍으면서 투아웃이 됐지만, 1루 약속구가 나오면서 박찬호가 세이프됐다. 상대 실책으로 생존했던 소크라테스가 또 다른 실책으로 홈에 들어오면서 10-7이 됐다.

3점의 리드를 안고 9회말 마무리 정해영이 출격했다. 김현수-문보경-김범석을 상대한 정해영이 11개의 공으로 3개의 아웃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정해영은 시즌 11번째 세이브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최원준은 7회 베이스를 홈치면서 KBO 통산 105번째 '100도루'를 기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추락하는 광주FC 날개가 없다

K리그1 9라운드 수원FC전 추가시간 실점 1-2 역전패... 6연패하며 '최하위' 떨어져

광주FC가 또 '추가 실점 악몽'에 올랐다.

광주FC가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4 9라운드 경기에서 1-2 역전패를 기록했다.

전반 44분 '루키' 문민서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 전·후반 추가 시간에 연달아 골을 허용하면서 6연패에 빠졌다.

김한길의 전반전 빠른 움직임으로 경기를 이끌었다. 15분에는 왼발 슈팅을 선보였고, 전반 21분에는 공을 낚아채 오른쪽 측면을 파고들면서 공격 기회를 만들었다.

전반 29분에는 왼쪽에서 올라온 공이 김한길 머리에 이어 오후성의 슈팅으로 연결됐지만 득점에는 실패했다.

전반 42분 실점 위기가 있었다. 수원FC 박철우가 광주진영에서 수비진을 따돌리고 운빛가람의 슈팅까지 연결시켰다. 운빛가람의 슈팅 맞고 흐른 공이 안데르손에게 연결됐고,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지만 골대를 벗어났다.

그리고 전반 44분 기다렸던 골이 나왔다. 문민서가 주인공이었다.

두현석이 뒤에서 길게 올려준 공을 잡은 문민서가 골대 왼쪽에서 상대 수비진과 맞섰다. 한 템포 숨을 고른 문민서는 골키퍼를 마주한 채 오른발로 공을 때렸다. 포물선을 그린 공은 그대로 골키퍼를 지나 골대 안으로 들어갔다.

3월 31일 대구FC와의 4라운드 홈경기에서 페널티킥 키퍼로 나서 프로 데뷔골을 장식했던 문민서의 시즌 2호골. 그러나 선제골을 장식했던 앞선 대구전과 마찬가지로 전반 추가시간에 실점을 기록한 광주는 후반 역전골까지 허용하면서 '루키'는 이번에도 같은 패턴의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선제골의 기쁨이 가시기 전에 올 시즌 광주의 고질적인 문제 '추가시간 실점'이 나타났다. 수원FC 정승원이 오른발로 때린 공이 골대 오른쪽 맞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후반전 광주가 승리를 위한 공세에 나섰다지만 운도 따르지 않았다.



광주FC의 '루키' 문민서(오른쪽)가 27일 수원FC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뒤 최경록과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후반 27분 교체 멤버로 들어가 분위기를 바꾼 가브리엘이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 맞은 공이 밖으로 흘렀다. 이어 정호연이 때린 공은 상대 팔에 맞았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됐다.

2분 뒤 가브리엘이 다시 슈팅을 선보였다. 김한길의 공을 몰고 올라간 뒤 오른쪽에 있던 가브리엘에게 공을 찰라쳤다. 공을 잡은 가브리엘이 오른발로 찰라친 공은 골대를 스쳐 지나갔다.

문민서를 대신해 후반 20분 투입됐던 정지용도 위력적인 슈팅을 선보였지만 골대 오른쪽 맞은 공은 골대를 외면했다.

후반 34분 정지용과 정호연에게 이어진 공, 이희균의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골키퍼 안준수에 막혔다.

1-1에서 후반전이 마무리되고 6분의 추가 시간이 주어졌다.

역습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가 수원FC에 역공을 당했다. 후반 50분 김태한이 때린 슈팅을 골키퍼 김경민이 쳐냈지만, 공은 뒤로 흘러 광주 골대를 가르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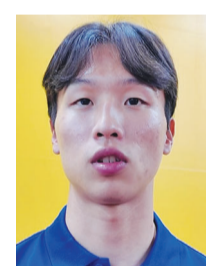
승부를 돌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경기가 1-2 역전패로 끝나면서 광주는 6연패에 빠졌다.

다시 또 패장이 된 이정호 감독은 "할 말이 없다"며 "(추가시간 실점의 경우) 경기 상황에 대해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뭐가 그렇게 급하고, 잘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영리하게 해야 한다. 기다려야 한다. 볼 소유하면서 더 상대를 지치게 하고, 내려앉게 해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야 한다.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가 급하지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닌데 급하다.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걸 넘지 못하면 많이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올림픽 탈락 아쉬워할 겨를 없다 亞챔스리그 준비 단단히 하겠다"

대표팀 활약 광주FC 엄지성



는 더욱 무거웠다. 하지만 엄지성은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서 당연하게 짊어져야 하는 무게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무산의 충격을 받고 광주FC의 엄지성이 다시 달린다.

황선홍 감독이 지휘한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은 지난 26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한국축구의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은 '9회'에서 끝났다.

앞서 한국은 1984년 로스앤젤레스 대회 이후 9회 연속 올림픽 무대에 진출했었다. 간절하게 기다렸던 엄지성의 올림픽 꿈도 물거품이 됐다. 엄지성은 인도네시아와의 경기에서 0-1로 뒤진 전반전 막판 황재원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해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하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지만 마지막에 웃지는 못했다.

지난 1일 대표팀에 소집됐던 엄지성은 27일 선수단과 귀국길에 올랐다. 그리고 귀국과 함께 광주축구전용구장을 찾아 동료들을 응원했다.

엄지성의 응원에도 광주FC는 이날 수원FC에 1-2 역전패를 당하면서 6연패에 빠졌다. 순위는 최하위로 내려왔다.

엄지성은 "꿈꾸다가 갸 느낌이다. 꿈만 꾸다가 좋은 꿈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갸 느낌이다"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다. 같은 일일로 경기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게 마지막이었다고 생각하니까 아쉽다. 더 잘해서 올라갔으면 더 많은 훈련과 경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다"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던 동료들과 이루지 못한 꿈을 아쉬워했다.

어느새 '올림픽 축구'가 당연한 것처럼 된 상황, 대한축구협회를 중심으로 여러 논란이 계속됐던 만큼 이번 대회에 나선 선수단의 어깨

고 이야기했다.

패배의 쓴잔을 마셨지만 이번 대회는 축구선수로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엄지성은 "많은 걸 느끼고 왔다. 아시아 선수들과 경기를 할 기회가 없었다. 오는 9월에 아시아챔피언스리그도 아시아팀들과 하는데 먼저 경험을 하고 온 느낌이다. 아시아팀들의 수준이 많이 높았다"며 "우리가 준비를 더 바짝하지 않으면 (아침에서도) 이번과 같은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엄지성의 시선은 리그로 향한다. 광주가 6연패에 빠져있고, 당장 5월 1일 제주원정이에 예정된 만큼 올림픽 탈락을 아쉬워할 겨를도 없다.

엄지성은 "현재 상황이 더 동기부여가 된다. 대표팀에 다녀오면서 한 달 가까이 팀에 빠져있었던 만큼 어떻게 팀에 녹아들고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경기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팀에 도움이 되는 플레이를 하기 위해 잘 준비해야 할 것 같다"며 "선수들이 자신감을 찾고 가야 한다. 자신감을 가지면 스스로에게 좋고, 팀원 전체한테도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선수들이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감독님, 코치님, 스태프 전체가 선수들을 위해 경기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선수들이 결과를 못 만들어 냈다. 하지만 이 또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